

6. 휴대 전화의 기능에 착안하여 ‘학교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능	연상 내용
①	통화	진행 요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알람	계획된 프로그램 시간을 지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③	카메라	필요한 소품을 잘 준비하여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④	일정 관리	사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⑤	인터넷 정보 검색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여 축제에 활용해야 한다.

7.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략 수립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소비 환경과 소비 실태를 고찰한다. ① -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료 수집	‘청소년들의 돈에 관한 가치관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용돈 사용처에 관한 통계’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 ②
내용 선정	- 청소년들이 충동적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음을 문제로 제시한다. ③ - 청소년 소비문화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 청소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④ -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징을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 방안을 제시한다.
조직	‘문제 제기 - 현황 분석 - 방향 제시 - 행동 촉구’의 순서로 구성한다. ⑤
표현	독자의 수준에 알맞은 어휘를 선택한다.

8.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공익 광고를 작성하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 봉사 활동을 권유하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대조적 표현을 사용할 것

- 기름을 쏟는 손도 있지만 기름을 닦는 손들이 더 많아, 오늘도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검은 바다를 살려낼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오염된 기름을 걷어내는 자원 봉사자들은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검은 머로 뒤덮인 바다 살리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서해안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인재로 인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안전은 우리에게 행복을, 부주의는 우리에게 불행을 줍니다.
- 바다를 더럽힌 사람도 있지만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바닷가 구석구석을 닦고 있습니다.
- 모래밭에는 기름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30만이 만든 감동, 우리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9. <보기>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폐해와 해결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I. 처음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

II. 중간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가. 심리적 측면
나. 시간적 측면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폐해
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혼동
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습 시간 부족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폐해에 대한 해결 방안
가. 정부 주도의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나.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개발
다.

III. 끝
: 청소년의 자각과 행동 변화 촉구

㉠ :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여 습관적으로 접속한다는 인터뷰를 제시한다.

㉢ :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우 관계의 소홀'로 수정한다.

㉣ : '11-2-가'를 고려하여 '새로운 삶을 가상 세계에서 모색'으로 수정한다.

㉤ :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 계획표 작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대도시의 교통수단 중 운송이라는 기능의 잣대로 재면 지하철을 따라갈 만한 것이 없다. 바로 이 뛰어난 ㉠운송 기능을 위해 지하철은 세계 대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그 철저한 기능성이 문제가 된다. 지하철을 타면 우리는 ㉡운송한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도시 생활에서 지하철을 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섰다. ㉢밤에 지나가는 기차의 불 켜진 창을 보면 기차의 낭만이 느껴진다.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앞사람의 피곤한 얼굴뿐이다.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는 ㉤무관심하게 신문을 들여다 보거나 눈을 감고 졸면서 이 좁고 긴 지하 공간을 벗어날 시간만을 가늠하게 된다.

- ① ㉠은 문장 내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운송 기능 때문에’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운송된다는’으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다 보니’로 바꿔야겠어.
- ⑤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무책임하게’로 바꿔야겠어.

11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오늘은 조사 ‘와/과’가 사용된 문장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와/과’가 쓰인 문장 중, 어떤 것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누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설명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문장 중 그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일까요? 단, 주어진 문장 외의 다른 상황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 철수와 영수는 잠잔다.
나. 철수와 영수는 친하다.
다. 철수와 영수는 싸웠다.
라. 철수와 영수는 마주쳤다.
마. 철수와 영수는 헤어졌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2 <보기>의 어느 곳에도 사용될 수 없는 단어는? [1점]

< 보 기 >

○ 나침반과 종이는 중국에서 ()되었다.
○ 그가 만든 비밀 조직이 이번에 ()되었다.
○ 과학 기술의 ()(으)로 산업 사회가 앞당겨졌다.
○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감시단을 ()시켰다.

- ① 발굴(發掘) ② 발각(發覺) ③ 발달(發達)
- ④ 발족(發足) ⑤ 발명(發明)

【13-18】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꽤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③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숫집 찾아가는 ㉠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④ 어른처럼 곡을 했다.

- 이용악, 「다리 위에서」 -

(나)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 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선반엔 꿀단지가 채워져 있기는커녕
㉡ 먼지만 부엌에 쌓여 있는데,
빛으로도 못 갚는 땃국물 같은 어린것들이
방 안에 제멋대로 뒹굴어져 자는데,

보는 이 없는 것,
알아 주는 이 없는 것,
이마 위에 이고 온
별빛을 풀어 놓는다.
소매에 묻히고 온
④ 달빛을 털어 놓는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다)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겹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아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시상 사람 무수한데 구테 너난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다지 자심(滋甚)하노

㉔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虛度)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 불청 원망 소래 온 때마다 틀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 한 남은 일을 밤에 할라 마음먹고
 언하당(言下堂)*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없이 달려드네

㉕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
맑고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 겹치두덕 : 옥심 언덕. 잠의 욕심이 언덕처럼 쌓임.
 * 언하당 :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에는 규칙적인 율격이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다)에는 여성의 힘겨운 삶이 나타나 있다.
 ③ (나)와 (다)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④ (가), (나), (다)에는 부채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⑤ (가), (나), (다)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 시구를 중심으로 (가)~(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는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게 해.
 ② (가)의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는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그래서 어린 시절이 어렵고 힘들었음을 알게 해.
 ③ (나)의 '촉촉한 밤 이슬에 젖으며'는 어머니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옴을 말하고 있어.
 ④ (다)의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대상을 거부하고 있어.
 ⑤ (다)의 '맑고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에는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어.

15 ㉔~㉕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보 기 >

시인은 참신하면서도 감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을 변용하여 표현한다. 예를 들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 ① ㉔ ② ㉕ ③ ㉔ ④ ㉕ ⑤ ㉔

16 <보기>의 밑줄 친 구절 중, ㉔과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나의 소년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옛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호져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북 자주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앉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애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 ① 은(銀)빛 바다 ② 조약돌
 ③ 노을 ④ 누런 모래둔
 ⑤ 버드나무 밑

17. (나)의 시적 구조를 살려 영상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	조명	음악
1 연	이른 새벽에 장시를 나가시는 어머니와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줄 것	조명을 어렵게 처리하여 인물들의 윤곽만을 보여줄 것 ①	조용하면서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을 사용할 것
2 연	늦은 밤 여기저기 텅골어 자는 아이들과 방안 풍경을 보여줄 것 ②	햇국물 묻은 아이들의 얼굴, 어수선했던 방안 풍경을 은은한 조명으로 비출 것	낮게 깔리면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을 사용할 것 ③
3 연	어머니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보여줄 것 ④	희망을 암시하는 밝고 환한 조명을 사용할 것 ⑤	부드러우면서도 애잔한 느낌의 음악을 사용할 것

18.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시구를 추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대구법을 사용할 것

○ 활유법을 사용할 것

①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② 태산 같은 이 내 잠 파도 같은 이 내 잠

③ 한 땀 뜨고 한숨자고 두 땀 뜨고 한밤자네

④ 살금살금 찾아와서 피곤한 이 내 몸 흔드누나

⑤ 잠아 잠아 장난꾸러기 숨바꼭질하자 덤비는구나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간디 사상의 요체인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만유의 법칙을 사랑으로 파악**하는 위대한 종교적·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주의 운동은 결코 수동적인 저항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간디는 절대로 몽상가는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폭력을 통해서 인도의 해방도, 보편적인 인간 해방도 없다는 것이었다. 민족 해방은 단지 외국 지배자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참다운 해방은 지배와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고 그 구조에 길들여져 온 심리적 습관과 욕망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일 - 다시 말하여 일체의 '칼의 교의(敎義)'로부터의 초월을 실현하는 것이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익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화한 서양의 산업 문명이었다.

근대 산업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자극하며, 금전과 물질의 노예로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평화와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노동 계급과 빈민에게 사회는 지옥이 되고, 비서구지역의 수많은 민중은 제국주의의 침탈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간디 사상에서 ㉠물레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드러난다. 간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물레질의 가치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력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다. 간디는 기계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지만, 거대 기계에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도시화, 낭비적 소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생산 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된다고** 할 때,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쉬운 것이다.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도외시킨**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질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19. 간디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요약하였다.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간디는 서양의 산업 문명이 ㉡을/를 바탕으로 착취와 억압의 사회 구조를 제도화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의 민중들은 끊임없이 이기심을 자극받아 금전과 물질의 노예로 타락하고 내면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간디는 무력에 바탕을 둔 독립 투쟁으로는 불완전한 결과밖에 낼 수 없다고 보고,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 비폭력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 간디는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서 행복의 추구와 ㉣이 가능한 이상적인 사회 즉,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고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	㉢	㉣
①	군사력	실천적인	자기완성
②	군사력	수동적인	풍요로운 생활
③	군사력	수동적인	자기완성
④	거대 기계	실천적인	자기완성
⑤	거대 기계	실천적인	풍요로운 생활

20 간디 사상에서 ㉠이 갖는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중 소유의 생산 수단
- ②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
- ③ 노동자 계급의 신분증
- ④ 착취와 억압의 수단
- ⑤ 경제 성장의 도구

21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밑줄 친 구절을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만유(萬有) -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 만물(萬物).
- 타락(墮落) - 품행이 나빠서 못된 구렁에 빠짐.
- 위계(位階) -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 종식(終熄) - 한때 매우 성하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 도외시(度外視) -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함.

- ① ‘만유의 법칙’은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움직이는 근본 법칙을 뜻하는구나.
- ② ‘노예로 타락’은 사람들이 근대 산업 문명의 영향 때문에 하층민의 신분이 되는 것을 뜻하는구나.
- ③ ‘위계적인 사회 조직’은 계층 따위로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사회를 뜻하는구나.
- ④ ‘착취 구조가 종식된다’는 더 이상 민중이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구나.
- ⑤ ‘인간을 도외시한’은 결국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구나.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림은 하반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이 펼쳐져감에 따라 실내에는 농도와 색깔이 다른 침묵이 쌓여져갔다. 목이 나타나고 턱, 입, 코, 눈, 이마를 거쳐 머리 부분이 나타나려 할 때였다.

“요런 고이안 놈, 당장 치워라!”

성주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모두는 소스라친 표정으로 딱 굳어졌고 실내에는 순식간에 살얼음이 끼었다. 다만 그 혼자만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주를 올려다본 채 계속 두투마리를 풀고 있었다.

“이놈 귀가 먹었느냐. 당장 치우라니까, 당장!”

성주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어인 분부시옵니까, 성주님.”

그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몰라서 묻는 거냐, 이놈! 네 놈 눈깔에는 내가 것처럼 흉물로 보이더라 말이나. 요런 발칙한 놈아.”

성주는 곧 쫓아 내려올 듯이 팔을 치뻔어대며 고함을 질렀다. 아....., 그는 끝도 없는 벼랑을 의식했다. 한 발짝만 물러서면 그대로 곤두박이고 마는 벼랑.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소인의 재주가 워낙 모자람을 잘 알고 있사오나 붓을 들어 화폭에 그림을 그릴 때만은 추호의 거짓도 없이, 티끌만큼의 잡념도 없이 마음을 다스리옵니다. 하옵고, 비록 그림이 다 되었다 하나 어느 한구석이라도 미진하거나, 선 한 가닥이라도 거슬리면 결코 타인 앞에 내놓지를 않사옵니다. 하물며 성주님의 영정을.....”

“닥쳐라 이놈아! 감히 어디라고 주둥아릴 나불거리느냐.”

벌겋게 찢발이 선 성주의 두꺼운 볼이 쉴룩거렸다.

“황궁하옵시다만 좌중에 물어주실 것을 소인 감히 소청드리옵니다.”

그는 신념 어린 눈빛으로 성주를 올려다보았다.

“당돌한 놈같으니라구.....”

성주는 수염을 신경질적으로 쓰다듬으며 신하들을 휘 둘러보았다.

그가 끝을 받쳐들고 있는 커다란 족자에는 실물 크기의 세 배에 가까운 성주의 좌상이 담겨져 있었다. 칼만 가까이해도 짹 벌어질 것처럼 팽팽하게 살이 찌오른 볼, 살에 밀려 거의 단힐 위기에 몰려 있는 가느다란 눈, 뚱뚱한 몸집의 체면을 손상하기에 제격인 채신머리없이 달라붙은 염소 수염, 몸집을 닮아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세상 넓은 줄만 아는 평퍼짐하게 퍼져버린 코, 그 장대한 육신을 먹여 살리기에 안성맞춤인 두껍고도 큰 입, 어느 부분이든 실물과 너무나 똑같았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발산하고 있는 분위기는 여지없이 성주 그대로였다. 흡사 무더위처럼 어디선가 꾸역꾸역 피어오르는 심술이라든가 땀 냄새처럼 끈적끈적하게 묻어나는 것 같은 탐욕스러운은 영락없이 살아 움직이는 성주였다.

“네 놈 소원이 정히 그렇다면 한 사람씩 의견을 들도록 하겠다. 허나 만약 한 사람이라도 네 놈의 말과 다를 시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래도 자신이 있는가?”

성주가 잔인한 웃음을 입가에 물며 싸늘한 경고를 내던졌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는 성주를 똑바로 응시하며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방자한 놈같으니..... 여봐라, 그대들은 차례로 저 그림을 보고 그 느낌을 숨김없이 아뢰도록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한 사람씩 성주의 영정 앞에 읊을 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저건 성주님의 영정이 아닌 줄 아옵니다.”

“그러하옵시다. 성주님과는 전혀 닮은 데가 없음이 사실이옵니다.”

“소인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성주님의 모습이 저러하오리까.”

㉠ 신하들의 말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고, 그의 눈은 차츰차츰 이상한 빛을 띠어가고 있었다.

“저자가 감히 성주님을 모독하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옵시다. 성주님의 인자하시고 후덕하신 모습을 저자가 고의로 왜곡하고 있사옵니다.”

“더 아뢰어 무엇하오리까. 환칠을 할 줄 안다는 좁스런 손재주를 가지고 성주님을 모독하려 했음이 분명한즉 이 어찌 죄가 되지 않으오리까.”

그의 눈은 이제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네 이노움! 귀가 뚫렸으니 빼놓지 않고 다 들었으련다. 그 래도 더 할말이 있느냐!”

성주는 실내가 찌렁찌렁 울리도록 호명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떴다. 그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중론을 들고자 했던 것은 어리석고 어설픈 투기였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조금도 동요의 빛이 없이 깨끗하게 일어선 그는 입을 열었다.

“㉡ 모두의 말이 다 옳습니다. 하오나 매일 아침 당경(唐鏡)*을 보셨을 때 당경도 그런 말을 했사옵니까. 분명 당경만은 거짓을 고하지 않았으리라 믿사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뿔뿔 불이 붙고 있었다.

“저, 저놈이....., 저놈을 당장 하옥시키도록 하라.”

성주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의 팔에는 결박이 지어졌다.

- 조정래, 「어떤 술거의 죽음」 -

* 당경(唐鏡) : 거울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인 어조를 통해 해학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고조되고 있다.
- ③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인물이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개인적인 결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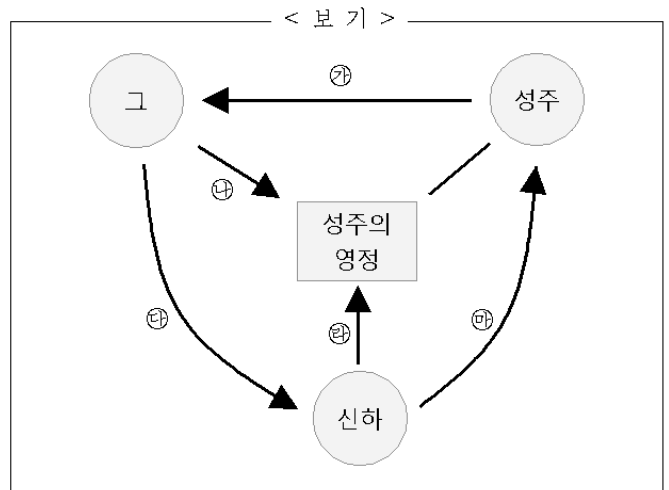
23 ㉠의 상황에서 ‘그’가 불렀을직한 노래로 적절한 것은?

- ① 옥을 돌이라 하니 그것이 애달퍼라. / 두 눈이 똑바르면 아는 법 있건마는 / 알고도 모르는 체하니 분노의 불 치솟네.
- ② 남을 믿겠는가 못 믿을 이 임이시라. / 믿어 온 시절도 못 믿을 줄 알겠노라. / 믿기야 어렵지마는 아니 믿고 어이리.
- ③ 인생이 돌인가 셋인가 이 몸이 네다섯인가. / 빌어온 인생에 커다란 꿈을 꾸고 / 평생에 꿈 이를 일만 하고 언제 놀려 하는가.
- ④ 높으나 높은 나무 날 권하여 올려 두고 / 여보오 사람들이아 흔들지나 말려무나. / 떨어져 죽기는 서럽지 않아도 임 못 불가 하노라.
- ⑤ 나무도 병이 드니 거목이어도 쉼 이 없다. / 호화로이 섰을 때는 올 이 갈 이 다 쉬더니 / 잎 지고 가지 꺾은 후는 새도 아니 앓는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 언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② 사물을 통해 성주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 ③ 방어적인 어법을 사용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④ 이전과는 다른 화제(話題)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25 <보기>의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나를 어떻게 훌륭하게 그리다니? 엄벌을 내리리라.’
- ② ㉢: ‘성주님의 외모 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잘 드러냈어.’
- ③ ㉣: ‘내 그림에 대해 정확하게 판정해 줄 수 있을 거야.’
- ④ ㉣: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해.’
- ⑤ ㉤: ‘어찌 감히 성주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겠어.’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속담이란 한 민족이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짧은 글로 나타낸 관용적인 표현이다.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즉, 속담은 ㉠ 말의 중요성, ㉡ 돈과 경제, 지혜와 어리석음 등과 관련하여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표현 양식이다.

속담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얻어 널리 쓰이는 특성이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와 같이 속담은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얻어 자리 잡은 것이다. 또한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 많다는 것도 속담이 지닌 특성이다. ‘사모에 갓끈’, ‘개에게 호패’, ‘거적문에 돌쩌귀’와 같은 속담은 ‘자신의 격에 맞지 않고 지나침’을 이르는 속담으로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속담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성된 당대의 사회 모습을 보여 준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옛 속담들에서 ‘사모’, ‘갓끈’, ‘호패’, ‘거적문’, ‘돌쩌귀’ 등의 어휘는 속담이 만들어진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속담은 특정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은 예전에 ‘서당’에서 어린이들이 ‘풍월(風月)’과 관련된 성현들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지만 현대에는 ‘식당 개 삼 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생명력을 얻으면 속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속담은 독특한 언어 형식과 그에 따른 특징이 있다.

(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나) 언 발에 오줌 누기 / 새 발의 피 / 땡 대신 닭

(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가)와 같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대비시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나)와 같이 명사형으로 간결하게 끝을 맺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설이나 민담은 화자에 따라 얼마든지 부연과 생략이 가능하지만, 속담은 그렇지 않다. (다)에서 ‘나무에서’라는 말을 생략한다든지, ‘잘 생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 다.’처럼 다른 구절을 첨가하면 ‘아무리 익숙하고 잘 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한다.’라는 속담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이처럼 화자에 따라 속담의 한 어구를 생략하거나 첨가한다면, 그 속담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를 생성하게 되어 속담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예로부터 전해 온 속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할 내용을 재치 있게 전달하고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의사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의 슬기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고 새로운 국어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

26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 ① 속담의 지역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② 속담의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
- ③ 속담의 표현 형식은 어떠한가?
- ④ 속담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 ⑤ 속담의 개념은 무엇인가?

27 <보기>의 속담에서 ㉠과 ㉡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보 기 >

- ㉠ 팔은 안으로 굽는다.
- ㉡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8 위 글을 읽은 뒤 <보기>의 자료를 접했다고 할 때, 자료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자료1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자료2

최근 언론 및 사람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마당 쓸고 돈 줌고’가 있다. 이는 기존의 속담인 ‘땡 먹고 알 먹고’를 변형한 것이다.

▶ 자료3

㉠ 누워서 떡 먹기, ㉡ 떡 먹기, ㉢ 누워서 떡 많이 먹기

▶ 자료4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친구 따라 배낭여행 간다.

▶ 자료5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 학식이나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뜻

- ① 자료1 : 대비의 형식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군.
- ② 자료2 :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속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자료3 : ㉡, ㉢은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군.
- ④ 자료4 : 현대인의 생활상을 반영해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자료5 : 이 속담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농업 위주의 생활을 했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곳을 다달아 돛을 지우고 닻 내리니 여기가 바로 인당수라. ㉠ 거센 바람 크게 일어 바다가 뒤누우며 어룡이 싸우는 듯, 벽력이 일어난 듯, 너른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 노도 잃고 닻도 끊어지고 용총도 부러지며 키도 빠지고,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 비 뒤섞여 잿아진데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아 있고, 사면은 어둑하고 천지가 적막하여 간신히 떠오는데 뱃전은 탕탕, 돛대도 와지끈, 순식간에 위태하니, 도사공 이하 모두들 겁을 내어 정신이 달아나고, 고사 제물 차릴 적에 섬 쌀로 밥을 짓고 동이 술에 큰 소 잡아 온 소다리 온 소머리 사지 갈라 올려놓고, 큰 돼지 잡아 통째 삶아 큰 칼 썰어 기는 듯이 받쳐 놓고, 삼색 실과 오색 탕수, 갇은 고기 식혜류와 온갖 과일 방위 차려 고여 놓고, 심청을 목욕시켜 흰옷으로 갈아입혀 상머리에 앉힌 뒤에, 도사공이 앞에 나서 북을 둥둥 울리면서 고사한다.

[중략]

“우리 동무 스물네 명 장사를 직업 삼아 십여 세에 조수 타고 서호를 떠다니니, 인당수 용왕님은 사람 제물 받잡기로 유리국 도화동에 사는 십오 세 효녀 심청을 제물로 드리오니, 사해 용왕님은 고이고이 받으소서. 동해신 아명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축을 북해신 웅강이며, 칠금산 용왕님 자금산 용왕님 개개 섬 용왕님 영각대감 성황님, 허리간에 화장성황 이물고물 성황님네 다 굽어보옵소서. 물길 천리 먼먼 길에 바람구멍 열어내고, 낮이면 끝을 넘어 대야에 물 담은 듯이, 배가 무식도 되고 닻도 무식이 되고 용총마루 닻줄 모두 다 무식으로 점지하시고, 빠질 근심 없습고 재물 잃을 근심도 없애시어 억십만 금 이문 남겨 웃음으로 즐기고 춤으로 기뻐하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하며 북을 ‘두리둥 두리둥’ 치면서,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여도, 병든 아버지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버지를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님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 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보니 티없이 푸른 물은 ‘월러렁 팔렁’ 뒤둥구리 구비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엎드린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이 다시 정신차려 할 수 없어 일어나서 온 몸을 잔뜩 끼고 치마폭을 뒤집어쓰고, 중중걸음으로 물러섰다 바다 속에 몸을 던지며,

“애고 애고, 아버지 나는 죽소.”

뱃전에 한 말이 지킴하며 거꾸로 풍덩 빠져 놓으니, 꽃 같은 몸이 풍랑에 휩쓸리고 밝은 달이 물 속에 잠기어 너른 바다 속에 곡식날이 빠진 것 같았다. 새는 날 기운같이 물결은 잔잔하고 광풍은 삭아지며 안개 자욱하여 가는 구름 머물렀고, 맑은 하늘 푸른 안개 새는 날 동방처럼 날씨 명랑했다. 도사공 하는 말이,

“고사를 지낸 후에 날씨가 순통하니 심 낭자 덕 아니신가?”

좌중이 같은 생각이라 고사를 마치고,

“술 한 잔씩 먹고 담배 한 대씩 먹고 행선함새.”

“어, 그리 함새.”

‘어기야 어기야.’ 뱃노래 한 곡조에 삼승 돛을 채어 양쪽에 갈라달고 남경으로 들어갈 제, 와룡수 여울물에 쓰아놓은 살대같이, 기러기 다리에 전한 편지 북해 상에 기별같이 순식간에 남경으로 다달았다.

이때 심 낭자는 너른 바다에 몸이 들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무지개 영롱하고 향내가 코를 찌르더니, 맑은 피리 소리 은근히 들리기에 몸을 머물러 주저할 제, 옥황상제 하교하사 인당수 용왕과 사해용왕 지부왕에게 일일이 명을 내리셨다.

“내일 출천(出天) 효녀 심청이가 그곳에 갈 것이니 몸에 물한 점 묻지 않게 할 것이며, 만일 모시기를 실수하면 사해용왕은 천벌을 주고 지부왕은 파문을 내릴 것이니, 수정궁으로 모셔들여 3년 받들고 단장하여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 작자 미상, 「심청전(완판본)」 -

29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을 개척하는 심청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 ②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죽음을 수용하는 심청의 자세가 돋보여.
- ③ 당대 해상 무역의 거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어.
- ④ 심청과 선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어.
- ⑤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당대 피지배 계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30 <보기>는 위 작품 전체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단계(현실계)	2단계(환상계)	3단계(현실계)
가난한 맹인의 집에서 출생한 심청이 고생하며 살다가 부친을 위해 인당수에 투신함	용왕들의 도움으로 심청은 수정궁으로 가고 선녀가 된 어머니를 만남	심청이 황후가 되어 맹인 잔치를 열어 심봉사와 재회하고 심봉사는 눈을 뚫음

- ① 위 글의 선인들은 <보기> 1단계에 등장하는 인물이겠군.
- ② 위 글의 옥황상제는 <보기> 2단계의 도움을 지시했군.
- ③ 위 글은 <보기> 3단계로 마무리 될 때 행복한 결말이 되겠군.
- ④ 위 글에서는 현실계에서 환상계로의 공간적 이동이 나타나는데.
- ⑤ 위 글은 환상계를 속이야기로 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군.

31 <보기>는 위 글의 근원설화를 간추린 것이다. <보기>와 위 글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라의 아찬 양패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배가 곡도(鵠島)에 이르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 열흘 이상이나 묵게 되었다. 양패가 섬 안에 있는 못 위에서 제사를 지내니 그날 밤 꿈에 노인 모습을 한 서해 용왕이 나타나 양패를 호위하는 50인의 궁수 중 한 사람을 바치면 뱃길이 무사하리라고 말하였다. 나뭇조각에 궁수들의 이름을 적어 물속에 가라앉게 한 결과 거타지(居陁知)라는 사람이 뱃히어 홀로 섬에 남게 되자 순풍이 일어나 배는 떠나가게 되었다. 거타지가 근심에 싸여 있는데 서해 용왕이 못 속에서 나와 어떤 종이 해가 뜰 때 하늘에서 내려와 자손들의 간을 빼 먹어 자기 부부와 딸 하나만 남게 되었으니, 거타지의 활쏘기 능력을 발휘하여 중을 쏘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거타지가 용왕의 부탁을 받아들여 중을 활로 쏘니, 늙은 여우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에 용왕은 거타지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으며, 용 두 마리를 시켜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서 당나라까지 호위하게 하니, 당나라 황제가 보고를 받고 사신 일행을 후히 대접하였다.

- 『삼국유사』, 거타지 설화 -

- ① <보기>와 위 글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위 글에는 악행을 저지르는 요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 ③ <보기>와 위 글에서는 용왕이 안전한 항해를 주관한다는 발상을 찾을 수 있다.
- ④ <보기>와 위 글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는 주인공의 재능에, 위 글에서는 주인공의 바람직한 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에 나타난 선인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 | |
|--------------|--------------|
|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 ② 순망치한(唇亡齒寒) |
| ③ 좌충우돌(左衝右突) |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 ⑤ 백년하청(百年河清) | |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 세계에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세계 태양광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10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350억 달러(31조 5천억 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있고, 2012년 우리나라가 온실 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일반 주택이나 공동 주택이 3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현재 kW당 평균 504만원)를 보조해 준다. 이렇게 정부가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까닭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어느 지역이나 설치할 수 있고, 시설 유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데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한 가구당 1년에 3톤 정도로 큰 편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에는 태양 전지가 핵심 요소이다. [A] 1954년 처음 상용화된 1세대 실리콘 태양 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것이다. 2개의 반도체 경계 부분을 PN 접합이라고 부르는데, 태양빛이 태양 전지 속으로 흡수되면, 흡수된 태양빛의 에너지가 작용하여 접합면에서 +(정공)와 -(전자)의 전기를 갖는 입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정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되고, 앞면과 뒷면에 붙여 만든 전극에 전선을 이용하여 전구를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전극에서 전구를 거쳐 N형 반도체의 전극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의 크기는 태양빛이 많이 흡수될수록 더 커진다. 이러한 실리콘 태양 전지의 에너지 효율은 약 6% 정도였다. 그 뒤, 빛에 대한 감응도가 높은 박막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 전지는 효율이 평균 15% 정도까지 높아졌으며, 최근 특수 무기 반도체를 이용해 만든 실리콘 태양 전지는 효율이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초기 실리콘 태양 전지에 비해 생산 단가는 2배 이상 높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실리콘 태양 전지를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비용은 1kW당 700원 정도로 화력 발전소의 비용 70원의 10배 수준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와 ‘고분자 태양 전지’ 같은 2세대 유기 태양 전지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는 전기가 흐르는 유리판 두 장 사이에 산화티타늄(TiO₂)과 같은 고체 나노 코팅층을 입힌 뒤 두 판 사이에 태양빛을 흡수하는 루테튬 화합물 같은 유기 금속 염료 물질을 넣어서 만든다. 또 고분자 태양 전지는 한 장의 유리 또는 매우 얇은 플라스틱 기판 위에 두께가 약 200nm(나노미터, 1nm=10⁻⁹m) 이하의 고분자 반도체 나노층을 입혀 만든다.

두 태양 전지는 정밀 반도체 공정의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태양 전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30%에서 70%까지 적게 든다. 게다가 고분자 태양 전지 같은 경우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기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접을 수 있으며, 무게가 가벼워 건물 벽 같은 곳에도 쉽게 시공할 수 있다. 또 반투명한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어 건물의 창문이나 자동차 유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2세대 태양 전지는 1세대 태양 전지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아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빛에 대한 감응도와 흡수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태양광 에너지 가격이 2010년쯤 화력 발전소의 2~3배 수준까지 내려가고 2015년이 되면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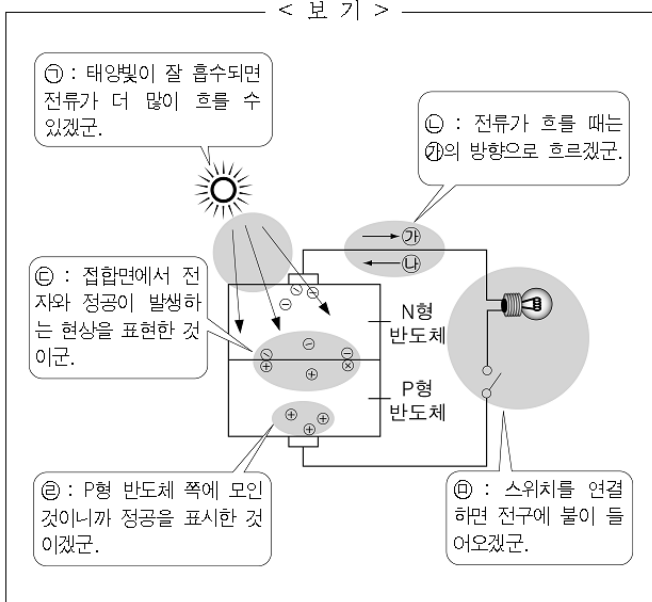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세대 태양 전지와 2세대 태양 전지를 대비하고 있다.
- ②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에너지 가격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 ⑤ 1세대 태양 전지의 발전 원리를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3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분자 태양 전지는 다른 태양 전지에 비해 시공이 더 쉽다.
- ② 2세대 태양 전지는 1세대 태양 전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③ 현재의 태양광 발전은 1세대 태양 전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태양광 발전은 시설 유지 비용이 화력 발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⑤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의 염료 물질은 태양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35 <보기>는 [A]에서 설명한 1세대 실리콘 태양 전지의 발전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㉞ ② ㉝ ③ ㉞ ④ ㉝ ⑤ ㉞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사용해야 하고, 요소를 사용하려면 대가를 ㉠ 치러야 한다. 그런데 그 대가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소득의 불균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득의 불균등이 심화될 경우 소득 계층 간에 갈등이 생겨 사회 발전을 ㉡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이를 ㉢ 고치려고 한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당성 여부나 허용 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벤담·롤스·노직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벤담(J. Bentham)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소득 재분배 정책을 입안·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 고소득자 소득의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이전해 주면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증가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고소득자는 일을 덜하게 된다. 또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패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벤담은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지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부를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롤스(J. Rawls)는 국가가 최하위 소득 계층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입안·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득을 분배한다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최하위 소득 계층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할 것이다. 롤스에 의하면 이 경우 구성원들은 최하위 소득 계층에 최대한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최하위 소득 계층에 소득을 ㉥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요컨대, 벤담이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롤스는 최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직(R. Nozick)은 소득의 창출자는 사회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구성원들의 소득을 강제로 재분배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을 얻는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가 아무리 불균등하더라도 국가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노직은 소득 형성의 기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한 그 결과로 형성된 소득을 사회가 인위적으로 재분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회든 분배나 성장이나를 놓고 논란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성원들의 일하려는 의욕이 감퇴되어 전체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소득 불균등이 심하면 소득 계층 간에 갈등이 생겨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 간의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다. 결국 소득 재분배 문제는 어떤 견해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견해들을 논의의 바탕으로 삼아 구성원들이 합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노직은 소득의 크기보다는 소득을 얻는 과정을 중시한다.
- ② 부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려는 정책은 구성원의 일하려는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
- ③ 롤스는 최하위 소득 계층에게 소득 형성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소득 불균형이 심하면 소득 계층 간에 갈등이 생겨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 ⑤ 벤담은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37 <보기>의 밑줄 친 질문에 대해 '노직'이 견해를 밝힌다고 가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명규와 덕주가 사막을 가다가 두 개의 오아시스를 찾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오아시스는 물이 적고, 먼 곳에 있는 오아시스는 물이 많았다. 덕주가 자신이 가까운 오아시스를 차지하겠다고 했고, 명규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덕주가 차지한 오아시스는 얼마 못 가 바닥이 드러났다. 이때 상길이가 물통을 갖고 있어 명규와 덕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물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길이가 갖고 있는 물통이 깨져서 물이 조금 샌다는 것이다. 과연 상길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 상길이는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정함.)

- ① 물통이 멀쩡하다면 명규의 물을 덕주에게 옮겨야 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물통은 새고 있다. 따라서 상길이는 물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 ② 깨진 물통으로 물을 옮기면 많은 물을 손해 보게 된다. 따라서 상길이는 명규와 덕주의 물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만 덕주에게 물을 옮겨야 한다.
- ③ 깨진 물통으로 물을 옮기면 많은 물을 손해 보게 된다. 따라서 상길이는 깨진 물통을 고친 후에 물을 옮겨 명규와 덕주가 균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 ④ 오아시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덕주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상길이는 덕주가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 ⑤ 깨진 물통으로 물을 옮기면 많은 물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규와 덕주를 불평등한 상태로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상길이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물을 옮겨 명규와 덕주가 균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이유를 찾기 위한 탐구 학습을 하였을 때, 그 추리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주관적인 만족감 정도를 '효용'이라 하고, 재화의 소비량을 1단위 추가했을 때 새롭게 얻은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하며, 이런 한계효용의 총합을 '총효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단위의 재화라도 누구에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한계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빵 한 개에서 5라는 한계효용을 얻는다면, 이미 빵을 여러 개 먹어 배가 부른 사람은 빵 한 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이 5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 ① 저소득자의 한계효용과 고소득자의 한계효용이 같기 때문이다.
- ② 저소득자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자의 한계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③ 저소득자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자의 한계효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④ 저소득자의 총효용이 고소득자의 총효용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저소득자의 총효용보다 고소득자의 총효용이 커야 하기 때문이다.

39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지불(支拂)해야 ② ㉡ : 저해(沮害)할
- ③ ㉢ : 개선(改善)하려고 ④ ㉣ : 발생(發生)할
- ⑤ ㉤ : 전가(轉嫁)해야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온달 : 그 날, 당신께서 내 앞에서 갓을 벗어 보이셨을 때 나는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하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어리 된 이 몸은 당신의 망극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병어리 된 입을 놀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후 내 하늘이었습니다. ㉠ 산김승과 더불어 살던 이 몸에게 사람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르치신 당신, 창으로 꿈을 잡듯, 덧으로 이리를 잡듯, 적의 군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싸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라와 백제의 성과 장수들을 나는 취하였습니다. 싸움터의 길은 내가 김승들을 쫓던 그 길보다 더는 험하지 않았습니까. 설사 천 배나 ㉡ 그 길이 험하였기로서니 나에게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 천한 몸에게 주어진 영광도 오직 공주를 위한 방패라 생각하고 나는 두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공주, 고구려 평양성의 인심은 무섭습니다. ㉢ 이 몸은 산에서 활을 쏘고 창으로 끼니를 얻던 그때처럼 편한 마음을 한신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 평양성에서 나는 눈멀고 귀먹은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보지도 듣지도 않았 습니다. 부마될 내력 없다고 이 몸을 비웃는 소리도 나에 게는 가을날 산의 가랑잎 스치는 소리더군요. 하늘인 당 신을 모신 이 몸은 아무 것도 듣지도 보지도 않았습니 다. 무엇을 들어야 할 이치가 있었을까요? 술한 사람들이 나 에게 말했습니다. 공주 당신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들 어서는 안 된다고. 온달은 나라의 부마이고 나라의 장군 이라고....., 그러나 다 이 몸에게는 부질없는 말들. ㉔ 공 주, 당신이 나의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그것은 당신이 었습니다. 덕이 높으신 왕자의 말씀도 내 귀는 듣지 못하 였습니다. ㉕ 그분들은 모두 다른 고구려를 섬기는 어른 들인 것을 나는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몸과는 상 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서 떠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고구려를 섬기는 사람들이 당신을 해칠 일이, 공주.....,

공주 : 장군. (가까이 다가선다.)

온달 : (다가서다가) 안 됩니다. (손을 들어 막으며 한 발 물러 선다.)

공주 : 가지 마시오. 장군.

온달 : 이윽고 새벽이 되겠으니, 죽은 자는 제 몸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요. (이때 새벽 종소리)

공주 : 장군, 장군을 해친 자가 누구입니까?

온달 : 머리에, 머리에 상처가 있는 장수, 잠든 나를 찌른 그 자 를 내가 칼로 찼소. (뿔결음질로 물러간다.)

공주 : 장군 이름을, 그자의 이름을.....,

온달 : (고개를 갇는다.) 공주, 어머니를 어머니를....., (영(靈) 사라진다.)

공주 : 아아 장군.....,

[중간 줄거리] 공주는 불길한 생각에 잠겨 온달의 신변을 걱정한 다. 그리고 온달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온달이 남긴 말에 대해 번 민을 한다. 얼마 후 궁중 전령이 공주궁에 찾아와 온달의 죽음을 알리자, 공주는 기절한다. 공주는 온달의 시신을 평양성으로 옮기 려고 전장으로 찾아가는데, 여러 명의 군병이 온달의 관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공주가 직접 온 달의 관 앞에다가 가서 관을 열게 한다.

공주 : (관 앞에 꿇어 앉아, 한손으로 모서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시체를 쓰다듬는다.) 장군....., 이게 웬일입 니까? (고개를 돌려 장수들을 한 사람씩 찬찬히 훑 어본다. 갑자기 몸을 일으켜 돌아서며) 장수들은 투 구를 벗으시오.

장수들 :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다.)

공주 : 내가 알아볼 것이 있으니 장수들은 투구를 벗으 [A] 시오.

온달의 부장 : 싸움터에서 장수는 투구를 벗지 못합니다.

공주 :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명하는 것이니 잠시 벗어라.

전령 장교 : 안 됩니다.

공주 : 정말 못 벗겠느냐?

온달의 부장 : 군율이 산과 같습니다.

공주 : 패섬한 것. 네가 벌써 나를 업수이 보는가? 그러면 내 손 으로 벗기리라. (다가선다. 호위 군사들 창으로 앞을 막 는다. 장교들도 가로막는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내 앞에 창을 대느냐? 물러서라. (호위병들 묵묵부답으로 막아선

채로 있는다. 공주, 비를거린다. 시녀들이 급히 부촉한 다.) 아아 그랬던가..... 그랬던가....., 새벽에 하신 말씀을 이제야 알겠구나. 오, 오랜 꿈 오랜 꿈의 길이 이제 환하 고나. 장군, 당신이 누구였던가를 당신이 나의 누구였던 가를....., (관 곁에 돌아온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②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분열된 의식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관련 없는 사건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되고 있다.

41 <보기>는 위 글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 으로 ㉔ ~ ㉕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바로 온달과 평강 공주의 설화를 변형하여 재해 석한 것입니다. 공주가 왕궁에서 나온 것을 정치적 암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해석하고, 우연히 온달의 집에 들른 공주가 온달을 배우자로 선택해 그를 정치적 동반자로 만든 것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달이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로 인해 부장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변형과 재해 석을 통해 애매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설화의 의미를 강화 했고, 또 공주에 대한 온달의 절대적인 사랑을 인상적으로 부각시켜 관객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 것입니다.

- ① ㉔ - 온달을 정치적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공주의 노력을 뜻하는군.
- ② ㉕ - 온달이 공주의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 미하는군.
- ③ ㉔ -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는 음모에 대한 온달의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군.
- ④ ㉔ - 공주에 대한 온달의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낸 것이군.
- ⑤ ㉕ - 온달은 공주와 정치적 암투를 벌이는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군.

42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주'는 우회적으로 회유하고, '부장'은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 ② '공주'는 증거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부장'은 당황하여 변명 을 하고 있다.
- ③ '공주'는 지위를 내세워 행동을 요구하고, '부장'은 규정을 들 어 거부하고 있다.
- ④ '공주'는 문제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부장'은 논리적으 로 해명하고 있다.
- ⑤ '공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명령을 하고, '부장'은 이유를 제 시하지 않고 반박하고 있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음의 높낮이, 길이, 세기, 빛깔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음악의 구성 요소를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악보를 기록하는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 중 음의 빛깔과 ㉠ 세기는 선율의 장식적, 변화적 요인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율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간보(井間譜)의 창안은 획기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세종 때 창안된 정간보는 동양에서 가장 앞선 ㉡ 유량(有量)악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이유는 우리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서였다. 세종 이전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아악을 기록하는 악보가 있었으나, 아악은 음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음 높이만 기록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향악은 음의 길이가 서로 달라 아악의 악보만으로 향악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만들었듯이, 우리 음악인 향악을 기록하기 위하여 정간보를 만든 것이다.

정간보는 우물 정(井)자가 원고지처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간보에서 음의 높이는 정간(칸) 안에 문자를 써서 나타낸다. 문자는 음이름의 첫 글자를 한자(漢字)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음악의 음이름은 무엇인가? 우리 음악의 음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흔히 ‘궁상각치우’라고 답한다. 그러나 궁상각치우는 중국 음악에서 쓰이는 ㉢ 계이름이다. 국악의 한 ㉣ 음역 안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12음이 있다. 이 12음을 12율이라고 하는데, 12율에는 각각 고유한 이름, 즉 율명이 있다. 바로,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이다. 정간보에서 소리의 높이는 바로 12율명의 첫 글자로 표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타브의 변화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정간보에서 옥타브 표시는 문자의 변(邊)에 따라 구별된다. 즉 ㉤ 기본음인 황종은 황(黃)으로 표기하고, 한 옥타브 높은 음은 삼수변(𪛗)을 붙여 황(𪛗)으로 나타내며, 두 옥타브 높은 음은 삼수변 두 개를 붙여 황(𪛗)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한 옥타브 낮은 음은 인변(亻)을 붙여 표기하며, 두 옥타브 낮은 음은 인변을 두 개 붙여 나타낸다. 옥타브 높은 음의 율명에 삼수변을 붙이는 것은 청성(淸聲)의 ‘淸’에서 따온 것이며, 옥타브 낮은 음에 인변을 붙이는 것은 ㉥ 배성(倍聲)의 ‘倍’에서 따온 것이다.

정간보에서 한 정간(칸)은 한 박을 나타낸다. 정간보의 한 정간이 한 박일 때, 그보다 긴 음은 정간의 수에 따라, 그보다 짧은 음은 정간 속에 쓰여진 율명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 정간에 율명 하나가 있으면 그 음은 한 박이 되고, 한 정간에 율명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 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음은 두 박이 된다. 또한 한 정간에서 윗부분에 율명을 쓰고, 그 아랫부분에 짧은 가로선을 그어 놓은 것도 한 박이 된다. 이 선은 앞의 음이 연장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위 아래로 적혀 있으면 한 박이 2등분 되고, 세 음이 적혀 있거나 두 음과 짧은 가로선이 있으면 3등분 된다. 정간보를 읽는 순서는 정간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로 읽어 나간다. 다만 정간 속의 율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은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43 위 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악과 달리 아악은 음의 길이가 같군.
- ② ‘정간보’는 향악을 기록하기 위해 만든 것이군.
- ③ ‘정간보’라는 명칭은 악보의 모양과 관련이 있군.
- ④ 선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의 길이와 높낮이로군.
- ⑤ 국악과 서양 음악은 한 음역 안에 있는 음의 개수가 다르군.

4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간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應	大 無	黃
南	林 一 仲	
—	—	姑

- ① 仲은 1과 1/3박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黃은 두 박의 길이로 연주해야 하겠군.
- ③ 林과 大는 음의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應과 姑의 길이를 합하면 黃의 길이와 같겠군.
- ⑤ 黃, 姑, 大, 無, 林, 仲, 應, 南의 순서로 읽어야 하겠군.

45 ㉤의 원리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옥타브 높은 음	한 옥타브 높은 음	기본음	한 옥타브 낮은 음	두 옥타브 낮은 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46 ㉠ ~ ㉥ 중 ‘음의 길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점]

- ① ㉠ 세기 ② ㉡ 유량(有量)악보 ③ ㉢ 계이름
- ④ ㉣ 음역 ⑤ ㉥ 배성(倍聲)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뇌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인간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뇌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런 뇌 세포들은 신경 세포와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뇌 세포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신경 세포는 뇌 전체의 10% 미만이고, 뇌의 대부분은 교세포가 차지한다. 교세포는 신경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일을 하며 신경 세포가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뇌의 구조를 보면 교세포가 귀찮은 일들을 모두 떠맡고 신경 세포는 본연의 임무인 신경 신호 전달에 전념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다.

뇌의 발생 과정을 보면 임신 초기의 배아기 중 신경 형성에 수많은 신경 세포가 생겨났다가 차츰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완전한 뇌에 존재하는 신경 세포 숫자의 배 이상이 발생 초기에 생겼다가 사라진다. 신경 세포는 신호 전달이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세포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 따라서 초기에 다량으로 생긴 신경 세포들은 저마다 초기 상태의 신경 돌기들을 마구 뻗어서 서로 서로 맞는 짝을 찾다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냅스*를 형성한 것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의 경쟁은 폭발적으로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결판나고,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 뇌와 척수 ㉔ 같은 중추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 세포는 일단 만들어져 속아지고 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로 다치거나 없어진다면 원래대로 재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의 내장 기관 중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간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간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도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나머지 다른 기관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재생 능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뇌 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세포는 분열할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분열이 제한되어 있어 다른 기관과 달리 재생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관찰 결과 뇌의 신경 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교세포들이 신경 세포의 재생을 막는 방해물들을 내어 재생을 막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신경 세포 하나만을 꺼내서 일부러 상처를 입힌 뒤, 방해 물질과의 접촉을 막고 신경 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물질들을 처리해주면 신경 세포가 재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원래 재생력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교세포가 방해 공작을 펴서 신경 세포의 분열과 재생을 막도록 진화해왔을까? 우리가 ㉕ 어떤 정보를 뇌 세포에 기억시키는 것은 그 정보를 신경 세포의 회로에 저장한다는 것이다. 이 신경 세포는 이후에 이동하거나 변화되면 안 된다. 정보를 저장한 뒤에도 신경 세포가 마구 분열한다면 이후 이 회로는 엉망이 되어 기억의 내용이 뒤죽박죽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정보를 저장하고 회로가 완성되면 신경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기억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상처를 입었을 때 재생할 수 없다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의 신경 전달 회로를 지키려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㉖, 진화는 그렇게 냉정하게 진행되어 왔다.

* 시냅스 : 신경 세포의 신경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 세포에 접합하는 부위.

47. 위 글이 해결하고자 한 주요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세포와 신경 세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② 뇌의 발생 과정에서 신경 세포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 ③ 손상된 뇌 신경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교세포가 신경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 ⑤ 재생하는 기관과 재생하지 않는 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48. ㉗과 <보기>의 원리가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결혼식 과정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했다. 이 테이프의 내용을 영구 보존하려면, 다른 내용이 녹화되지 않게 녹화 탭을 떼어 두어야 한다. 녹화 탭을 떼어 두면 실수로 그 위에 다른 내용이 녹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㉙ 녹화 탭을 떼는 것을 잊어서 테이프에 다른 내용이 녹화된다면 테이프는 여러 개의 내용이 뒤섞이게 된다.

- ① 정보를 뇌 세포에 저장하는 것
- ② 신경 세포의 회로가 완성되는 것
- ③ 교세포가 방해 물질을 분비하는 것
- ④ 신경 세포 회로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
- ⑤ 발생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경 세포가 죽는 것

49. ㉚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것
- ②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 ③ 이론은 측면과 해로운 측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 ④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 ⑤ 두 가지 이득을 추구하다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이익을 얻는 것

50. ㉛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다.
- ② 말 같은 말을 해야 내가 믿지.
- ③ 나와 키가 같은 영수가 짝이 되었다.
- ④ 이 화장품을 바르면 백옥 같은 피부가 됩니다.
- ⑤ 국수나 냉면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무를 곁들여야 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